

2024  
11

#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www.kamt.or.kr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원활한 병리협보 배송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5자리 우편번호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 CONTENTS

### 01 COVER

‘지역사회 의료 돌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  
국회토론회 성료

### 02 FOCUS

규모가 작은 중소 병원·의원  
임상병리사들의 목소리는  
방치해도 됩니까?

### 09 INTERVIEW

동덕대학교 임상병리학 교수  
연구진, 수면패치 개발...  
현경에 교수를 만나다

## 제502호

###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 We pioneer breakthroughs in healthcare. For everyone. Everywhere. Siemens Healthineers Ltd.
-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 연구를 위한 모든 것 Total Lab Solution for you Hyunil Lab Mate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서경아  
 편집위원 이도왕, 이현희, 남기준  
 기 자 황래환  
 디자인·인쇄 혜성디자인  
 Tel : 02)469-0577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지역사회 의료 돌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 국회토론회 성료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이광우)가 10월 29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지역사회 의료 돌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희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기획정책이사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윤, 서미화, 전진숙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1부 개회식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김윤 의원과 서미화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이자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인 한정환 회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주회중 회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 대한안경사협회 허봉현 회장,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이지은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문진웅 상근부회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재진 부의장, 국회의원 김성용 민생정책비서관, 국회의원 이만우 정책비서관,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 디자인스튜디오에이 이상희 대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자문위원, 고문, 시도회장, 분과학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후 진행된 개회식에서 김윤 의원은 “임상병리사는 방문 현장검사 장비를 활용해 검사 결과의 질적 관리와 장비 운영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인력”이라며 “이러한 맞춤형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앞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의료와 돌봄 전문 직종들이 협력해 세부 내용을 충실히 채워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서미화 의원은 “최근 타계한 김수미씨 역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가 있었다면 죽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돌봄통합지원법 본격 시행 전에 해당 법안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보완 방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특히, 지역사회 돌봄의료 시 방문 현장검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임상병리사들이 검사가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면 환자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광우 협회장은 “대한민국 7만 2천여 임상병리사는 국민이 지역사회 의료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신속하고 정확한 방문 현장검사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임상병리사는 방문 현장검사 필수인력임에도 아직 그에 걸맞는 법과 제도적 보완점이 남아있기에 이번 정책토론회가 우리 임상병리사들이 사회적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개선



의 교두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정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의료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의료 돌봄 체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또한 향후 지역사회 돌봄 체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축사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현장검사는 지역사회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서비스이며 지역사회 의료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민

요구가 커지는데도 이를 수행할 보건의료인력은 부족하고 현장에서 애쓰는 분들의 근무 여건도 열악하다”고 말하며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분야별 지역 돌봄서비스를 점검하고 직역간 역할 구분과 협업 체계를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노인과 장애인은 증가해 돌봄 요구가 늘고 있다”며 “병원 안에 갇혀있는 의료를 삶의 현장으로 옮겨 열린 의료로 만드는 데 여러분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이사장은 “여러 직역 및 직종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는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첫 단추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후 ‘방문검사 전문가 임상병리사가 함께합니다’와 ‘지역사회 돌봄의료 함께하는 임상병리사’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Neglect

규모가 작은 중소 병원·의원 임상병리사들의 목소리는 방치해도 됩니까?



지난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집단시위를 했습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인력들은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러기에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정부의 지원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이나 10인 미만은 물론 30인 미만 사업장도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예외입니다.

의료기관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치료를 위해 일하는 중소 병원·의원 임상병리사들은 여전히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과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은 97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 대형 병원과 의사를 제외한 중소병원에 50만에 가까운 보건의료인력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7월 초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임금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의 평균연봉은 간호사의 임금보다 5배, 간호조무사의 임금과 비교하면 8배나 더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병원, 의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들의 평균급여는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금번 실시된 임금실태를 보면 중소 병원·의원 보건의료인력들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기본적인 조건인 근무시간, 고용형태, 성별, 지역을 비교한 결과에서 다양한 차별적 임금실태가 확인됐습니다. 또한 중소 병원·의원의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5개 직종에서는 성별, 지역별, 사업장 규모별 임금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인력들의 현실적인 임금실태조사를 통해서 경력과 숙련도에 따라 적정임금 보수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가 마련된다면 보건의료인력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도 수가를 적용하고 인건비로 연계되는 정책도 실행되어야 합니다.

2024년 보건의료노조에서 조사한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중간보고 직장 만족도에 대한 부분에서 고용불만은 31.2%, 임금수준 불만은 62.4%, 직장 분위기 불만은 25.7%, 업무량 노동강도 불만은 40.4%로 임금수준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임금부분 실태조사에서는 월 최저임금 206만원 미만이 18.6% 이고 250만원 미만자가 63.9%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근로자 평균임금 421만원과 큰 차이가 납니다.

임금 지불 능력에 해당하는 병원의 수익구조에서 보면 지불 능력의 여력은 매년 6% 정도 인상이 되는 것으로 보건의료노조의 임금실태조사에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시장임금 측면에서 초대졸은 3600만원, 대졸은 4,600만원의 수준

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면 보건의료직이라는 직무가치를 따른 임상병리사의 적정 임금 수준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비합리적이고 열악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전문직에 대한 소명감과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직종별, 경력별, 성별,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중소병원원 적정임금 수준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임상병리사들이 행복해야 보건의료기관을 찾는 국민들이 행복합니다.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기본권보장과 적정보수체계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무입니다. 또한, 이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의 해소와 불평등, 양극화 해소 등 행복한 보건의료인을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현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일하는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치, 적정규모 확충, 직종별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중소 병원·의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은 전체 의료기관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적정임금체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그러므로 중소 병원·의원 보건의료인력의 높은 이직율과 직종별 임금격차 등을 위한 해결책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이 글을 읽는 임상병리사들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협회에서도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접근을 하고 해결책 강구에 대한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장애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이미 존재하는 법 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회,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에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직역만이 아닌 모든 직역이 합일할 수 있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없이 우리의 절실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정부 관련기관에 우리의 요구안을 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료현장의 잘못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협회와 회원들과 함께 임상병리사의 권익을 되찾는 정책을 다함께 펼쳐 나가야겠습니다.

전산연수강좌 개최 안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학술부가 11월 28일(목)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전산연수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무료교육으로 보수교육 평점은 없다. 등록기간은 11월 8일(금)부터 24일(일)까지로 선착순 10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 접수는 협회 홈페이지 협회소식-공지사항에 게재된 게시물(https://www.kamt.or.kr/news/notice\_view.aspx?brld=127610)에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Table with 4 columns: 시간, 내용, 강사, 강사. Rows include 19:00-19:05 인사말, 19:05-19:50 검사실 LIS의 원리 및 운용, 19:50-20:00 검사실 통합 프로그램 이해 및 소개, 20:00-21:00 엑셀합수를 이용한 검사실 인증 문서 만들기(שלם강의), 21:00-21:10 전산 퀴즈쇼 및 폐회식.

※ 20:00-21:00 강의는 실습 중심의 강의로, 원활한 학습을 위해 노트북과 태블릿 등 액셀이 구동되는 전산장비를 준비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2025년 해외학회 발표자 모집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JAMT 국제 심포지움 주제 연구와 제 16회 APFMLS 및 AAMLS 학회 주제 연구 발표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협회소식-공지사항-학술을 참고바랍니다.

모집 기간: 2024. 12. 15(일)까지.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kamtintl@naver.com)



김윤 국회의원 좌장, 김기유 정책실장 발제... 임용 교수 비롯한 보건의료전문가 7인 지정토론 실시

이번 토론회는 김윤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기유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외협력정책실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임용 동의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교수,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소 연구위원, 이재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 김은주 화성시청 중앙노년복지과 노인정책관,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 신대현 쿠키뉴스 취재본부 건강생활부 기자,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등 총 7명이 지정토론을 실시했다.



김기유 대외협력정책실장은 '지역사회 의료물품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발제했다. 김 실장은 발제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만성질환 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예방 중심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One-Stop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방문 진료 현장검사를 통해 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임상병리사의 방문 현장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실장은 "만성질환에 따른 합병증 검사를 방문간호처럼 맞춤형 방문검사를 통해 임상검사의 전문성을 가진 임상병리사가 불확실성을 포함한 측정 행위가 아닌 숙련된 검사인력으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임상 결정 및 환자 상담이 커뮤니티케어와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지역보건법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따른 시행규칙에 방문건강관리 전문공무원의 요로기사 종별에 임상병리사는 없다. 따라서 방문 현장검사의 필요성 따른 임상병리사를 포함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임용 동의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교수는 '근거기반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임상병리사 인식 제고 필요'에 대해 발표했다. 임 교수는 "근거에 기반해 얘기하면 2019년 10월부터 시행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보건의료인력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지만 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현실에선 지켜지지 않는 게 안타깝다"며 "과학기술의 발달로 의료기기 재현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의료기기 평가 방법 또한 고도화되고 분석 오차를 줄이기 위한 전문 활동이 더욱 중요한 만큼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임상병리사가 진료지원 인력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고령화 사회와 통합돌봄사업: 지역사회 방문검사의 중요성과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 연구위원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확실해지면서 정부는 2018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고령자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만성질환 등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POCT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다만 현재 사업에서

POCT 제도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도 정부도 POCT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병리사의 역할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톨릭대 교수이자 일차의료연구회장인 이재호 교수는 '지역사회 돌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제도는 주치의 제도로, 만약 주치의 제도가 도입돼 일차의료로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김수미 배우도 평소 혈당 관리를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런데 일차의료 개념조차 없는 나라에서 요양병원 병상 수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한편으로 궁여지책에 가깝기에 지금이라도 일차의료로 통해 지역사회 돌봄의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시 중앙노년복지과 김은주 정책관은 '통합돌봄의 완결성 확보: 화성형 돌봄통합 실현'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정책관은 "기초자치단체는 자신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는 시군구 통합돌봄의 체계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각 현정마다 필요한 서비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위에서 각각의 기준 등을 정해서 내려보내지 않고 각 현정에 맡기고 맡겼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초고령 사회, 지역사회 통합 의료물품 체계 구축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역할 확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전 기획실장은 "방문 진료뿐만 아니라 비대면 원격 진료를 활용해야 하며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와 방문간호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키뉴스 건강생활부 신대현 기자는 '지역통합돌봄시스템 구축과 방문검사 정착'에 대해 발표했다. 신 기자는 "방문진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과 프로토콜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방문진료에 참여하는 임상병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역할과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법률 시행 전 문제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분절적인 제도들을 통합 연계하기 위한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된 것은 굉장히 기본이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잘 만들더라도

도 기준에 시행 중인 제도가 존재하기에 관련 법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때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유 실장은 토론회를 마친 후, "의료기관 안에서 임상검사를 해왔던 임상병리사들이 의료기관 안에 머물던 보건의료의 역할을 지역 사회로 확대해 돌봄수요자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돌봄통합지원법의 취지와 목적이라고 본다"며 "따라서, 이를 위해 지역에서 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이 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501차 상임이사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10월 10일(목) 오후 6시 30분 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50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19명 중 12명, 총원 45명 중 30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정리된 각 부서별 보고사항으로는 △총무부 2024년 제502차 상임이사회 및 시도분과 행정지도감사 교육 개최 안내, 2024년 제183차 정기이사회 및 송년회 개최 안내, 사무국 직원 승진의 건 △재무부 교부금 지급, 종합학술대회 강사료/사회비(좌장비) 지급에 대한 내용, 2024년 재산세(토지부) 납부, 제휴 신한카드 발급 홍보에 대한 내용, 결제대행사(PG사) 변경의 건 △학술부 학술 회의, 학술 사업, 대한임상감사과학회 논문경진대회 개최의 건, 학술지 온라인판 강화 및 발표지내지 디자인개선 사업 △교육부 의기총 학생실습 TFT회의, 의기총 교육평가원 관련 TFT회의, 2025년 보수교육 운영계획,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문자발송 △국재부 교

차트레이닝 관련, 2024 IFBLS 관련 △공보부 병리협보 편집 및 발간, 병리협보 및 배너 광고 현황, 유튜브 및 SNS 관리, 축사 및 보도자료 작성, 2024 보사편람 광고 집행, 회원고충처리 현황 △정보통신부 전산시스템 운영 회의의 건, 홈페이지 유지보수의 건, 전산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업체 미팅의 건 △기획정책부 제1회 임상병리사 정책포럼 진행 △정무부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안내의 건 △섭외부 역사기록보존위원회 및 진로멘토링회의 △중소병의원부 공익신고 위원회 5차 회의, 중소병원원 발전위원회 5차 회의, 중소발전위원회 실무자료 개발팀 5차 소위원회 회의 △보험부 2024년 제4차 보험회 회의, 자료 업로드 건, 2024년 제4차 체혈료산정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다. 이어진 안건 심의, 의결에서는 서울시회 한마음단체(체육대회) 찬조금 지급의 건을 진행했다. 안건은 의결됐고 기타 토의 후 제501차 상임이사회는 정상적으로 폐회했다.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HR인사노무닷컴과 MOU 체결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온라인 평생교육 및 신규 자격증 개발 및 운영을 위해 HR인사노무닷컴 주식회사(대표 신동환)와 제휴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자격증 발급 및 신청 과정에 대한 업무를 HR인사노무닷컴에 위탁할 예정이며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 협력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원격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추후 신규 자격증 개발 및 신청, 자격증과 교육 과정 운영 및 관리, 홍보 및 소개, 기타 원격평생교육 기획 및 운영,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상호 증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광우 협회장은 협약식이 끝난 후, "평생교육원 설립은 28대 집행부의 공약사항이었는데 이번 HR인사노무닷컴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평생교육원 설립의 초석을 다진 것 같아 기쁘다"면서 "평생교육원 설립 후 교육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아 협회의 자원 선순환을 이루고 일반 국민들에게 임상병리사를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

### 2024년 한마음 단합대회 개최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회장 황문선)가 10월 9일(수) 여의도 국회관리용 축구장1에서 '2024년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 한마음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한마음 단합대회에는 950여 명의 회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했고, 우원식 국회의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의 축하와 이광우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의 축사 속에 치러졌다.

황문선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마음 단합대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집행부 모두가 늘 회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응원을 부탁했다. 황 회장은 무엇보다 다치는 일 없이 안전한 행사 진행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기원했다.



행사 중 구기종목인 피구와 족구는 병원 대항전으로 진행됐고, 명랑운동회는 참여한 전체 회원을 빨강, 노랑, 파랑, 초록 4팀으로 나눠 진행했다. 피구는 세브란스병원, 족구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시회 집행부는 회원과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록 하기 위해 밥차 및 커피차 운행, 에어바운스 설치, 어린이 그림 백일장, 페이스페인팅, 자녀와 함께 하는 게임 진행 등을 준비했다. 서울시회는 "오늘의 모든 순간들이 회원과 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는 10월 26일(토) 제8차 중소병의원 학술제를 건국대학교병원에서 개최했다.



## 중양회 동정

- 10월 2일** 학술·교육·국제부 통합 회의
- 10월 5일** 역사편찬위원회 및 진로멘토링사업 회의
- 10월 8일** 정보통신부 회의
- 10월 10일** 제501차 상임이사회
- 10월 17일** 제6차 공익신고위원회 회의
- 보건의료노조 의료전문직종 노동기본권 실무회의
- 10월 22일**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제1차 정기이사회 회의
- 정보통신부 회의
- 10월 25일** 2차 내부특별감사
- 10월 28일** 사업·학술부 회의
- 10월 29일** 지역사회 의료 돌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 국회토론회
- 10월 30일** 학술부 회의
- 10월 31일** 제6차 중소병의원 발전위원회 회의

##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

### '2024 바다런' 행사에서 심장 검사 지원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황원주)가 세계 심장의 날인 9월 29일(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서 개최한 '2024 바다런' 마라톤 행사에 참여해 행사 참가자들에게 심근경색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트로포닌 검사를 지원했다.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 소속 임상병리사 8명은 이번 행사에 참여해 총 61건의 트로포닌 검사를 진행했고 위험 결과를 보인 1명의 참가자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권고에 따라 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귀가 조치됐다.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는 이번 대회에서 높은 신뢰성을 지닌 검사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대회의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임상병리학 전공 학생들은 도핑검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상병리사 활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쌓고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김나라(체조), 서정화(모글 스키), 홍석만(장애인 육상), 김아람(쇼트트랙), 김동현(볼슬레이) 등 KADA 선수위원들과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행사장을 찾아 임상병리사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 부산서구 의료관광축제와 2024 부산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부스 운영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가 10월 11일(금)부터 12일(토)까지 이틀간 송도오션파크에서 개최된 제3회 부산서구 의료관광축제에서 부스를 운영했다. 부산시회는 축제 참가자들에게 혈당검사 지원과 혈당기 경품을 지급하며 임상병리사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

또한, 부산시회는 10월 18일(금)부터 20일(일)까지 사흘간 부산 BEXCO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 2024 부산 의료기기 전시회(KiMES BUSAN 2024)에서 부스를 운영했다.



### 2024년 제3회 해피투게더 실시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가 9월 24일(화) 2024년 제3회 해피투게더를 실시했다. 부산시회 황원주 회장과 임준택 부회장, 임용 부회장, 김민주 이사, 서충원 이사, 이태영 이사는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부산정신병원과 중앙U병원을 방문해 부산정신병원, 중앙U병원, 본병원, 삼성내과, 프라이병원, 흥인내과에 근무하는 회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부산시회는 해피투게더의 취지 설명, 보수교육 참여 독려, 통계청 정보 공유, 실무교육 계획 및 참여 안내, 행정부·사업부·학술부 업무 소개를 진행했고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중소병의원 회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고인고 홈페이지 관리,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포상심의위원회 위촉식 실시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가 10월 8일(화) 부산시회 사무실에서 포상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김삼록(좋은강안병원) △간사 이태영(부산백병원) △위원 이무현(덕천부민병원) △위원 최선희(대한산업보건협회) △위원 강윤남(미래병원) △위원 임준택(동의의료원) △위원 조명희(부산힘찬병원)

### 2024년 제2차 보수교육 실시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가 10월 19일(토) 오후 2시 부산 BEXCO 컨벤션홀에서 2024년 제2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디지털 전환 시대: POCT 운영 및 품질관리(김대은 대한임상검사정보학회 9대, 10대 학회장), 돌봄통합지원원에서 필요한 공직 임상병리사의 역할(김민호 대한공중보건검사학회 12대, 13대 학회장), 임상생리검사 동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언(안영희), 감염관리와 직업윤리(손재형 대한감염안전관리 임상병리사회 초대 회장)을 주제로 진행했다.



### 부산임상화학연구회 학술 세미나 개최

10월 16일(수) 오후 6시 30분 씨젠의료재단 부산경남검사센터 10층 회의실에서 부산임상화학연구회 학술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Randox Acusera 24.7 - Interlaboratory Data Management Reporting Software(연자 박관영 Randox Korea 학술영업부 과장, 대체연자 안광섭 씨젠의료재단 실장)와 2024년 Roche cobas pro 장비 소개(연자 박창기 Roche Korea 마케팅부 차장)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 대구광역시 임상병리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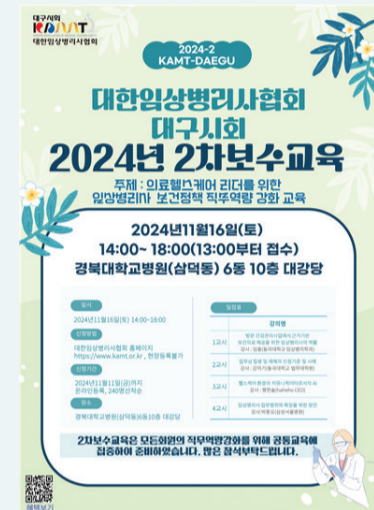
#### 2024년 제2차 보수교육 11월 16일 개최 예정

대구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문성식)가 11월 16일(토) 오후 2시 경북대학교 병원 6동 10층 대강당에서 2024년 제2차 보수교육을 개최한다.

문성식 회장은 보수교육을 준비하며, "의대 증원과 관련한 현 상황에 의료공백, 간호법 통과 등 여러 복잡한 현안이 대두되는 시기에 임상병리사로서 보건정책과 헬스케어 분야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알찬 강의를 준비했다"며 "제1차 보수교육 때와 같이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보수교육의 주제는 '의료헬스케어 리더를 위한 임상병리사의 보건정책과 직무역량 강화 교육'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서 근거 기반 보건의로 제공을 위한 임상병리사의 역할(동대 임상병리학과 교수 임용) △업무상 질병 및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사례(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김덕기) △헬스케어 환경의 커뮤니케이터로서의 AI(하해호 대표 평한술) △임상병리사 업무 범위와 확장을 위한 방안(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박종오) △필수영양교육

이번 보수교육은 뉴 노멀시대와 ESG 경영을 추구하는 대구시회 윤리경영 마인드를 반영해, 모든 강의 자료는 PDF로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다.



### 대전광역시 임상병리사회

#### 2024년 제2차 보수교육 실시

대전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권지연)가 10월 12일(토)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대전보건대학교 9동 1계단 강의실 및 8동에서 2024년 제2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보수교육에는 집행부를 비롯한 200여 명의 회원이 함께했다.

이번 교육은 POCT(혈당측정검사, 혈액가스검사) 관련 교육, 진공채혈관 사용법과 채혈기초처럼 모든 회원들에게 필요하고 관심 있는 주제로 진행했고 별도의 강의실을 마련해 중소병원을 위한 혈액형검사 및 수혈, 5주기 검진 평가를 대비한 4주기 평가문항 분석과 같이 중소병원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제로도 함께 실시했다.

대전시회는 "이번 보수교육이 많은 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면서 "이렇게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오프라인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전시회 보수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참석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전시회는 "이러한 우리 회원들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회 창출과 역량 발휘에 도움이 되고자 집행부에서는 주제 선정에 많은 고민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

#### 2024년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 추계학술대회 성료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학회장 김은영)가 지난 10월 26일(토) 서울대학교 병원 어린이병원 CJ홀&제일제당홀에서 2024년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추계학술대회에 앞서 오전에는 수혈전문임상병리사 워크숍을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진행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사전등록인원 235명이 참석했고 총 5개 업체가 전시부스로 참가했으며 7건의 학술포스터가 전시됐다. 학술대회는 김은영 학회장의 인사말과 박

현준 고문의 격려사로 시작됐다. 학술대회는 아주대학교병원 임영애 교수의 '수혈 기준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1건의 특강과 '체혈로 산정 필요성과 향후 과제', '수혈 적정성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 카카오톡 채널 운영 방안', '2024년 혈액사업 현황, 페리틴검사 결과 모니터링을 통한 예정 수술 전 빈혈교정 활동' 등 5건의 구연발표로 진행됐고 성황리에 종료됐다.



###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 2024년 미생물전문임상병리사 자격시험 성료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학회장 황유연)가 9월 29일(일) 미생물전문임상병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자격시험에는 총 33명이 응시했고, 총 27명이 미생물전문임상병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임상미생물검사학회는 매년 이 자격시험을 통해 미생물 전문 분야의 임상병리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 및 자격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국내 임상미생물 분야의 전문가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회 관계자는 "올해도 훌륭한 임상병리사들이 배출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회는 임상미생물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험을 통해 배출된 신규 미생물전문임상병리사들은 전국 병원 및 연구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환자 진단 및 치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는 오는 11월 16일(토)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신 미생물학 연구 및 임상병리 검사 기법에 대한 다양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상미생물검사학회는 "미생물학 분야의 최신 지식을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될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추계학술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임상병리사회 홈페이지 보수교육탭에서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 제주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

#### 2024년 제2차 보수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정무상)가 10월 19일(토) 오후 2시 30분 제주대학교병원 2층대강당에서 2024년 제2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요검사의 신뢰성 향상(시스멕스 장주희), 검진기관평가 길라잡이(제주대학교병원 김봉찬), Digital Health Care와 생리학 검사(건국대학교병원 박상구), 수혈학에서의 비예기 항체(제주한라대학교 정무상)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 대한임상핵의학검사학회

#### 2024 임상핵의학검사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대한임상핵의학검사학회(학회장 박준모)는 지난 10월 12일(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2024 임상핵의학검사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금번 학술대회는 제12차 아시아핵의학기술학회(ASNMT) 국제학술대회가 동시에 개최돼 다양한 발표의제가 있는 풍성한 학술대회로 진행됐고 박준모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와중에도 학회에 참석한 회원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핵의학검체 검사의 앞날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했다.



이어서 진행된 특강에서는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소속 장현영 전임 학회장의 '2023년 핵의학 검체검사 건수 통계분석 보고'에 관한 특강이 진행됐고, 이어진 일반연제 발표에서는 아주대학교병원 김진태 행정부회장의 '동등성 평가 시 측정불확도를 이용한 허용기준치 제안', 서울아산병원 이선호 통합부회장의 '분화 갑상샘암 환자의 갑상샘글로불린 측정에 방해되는 갑상샘글로불린 항체의 정량한계 설정에 관한 고찰', 원광대학교병원 과지중회원의 '지원된 인슐린 검사에서 검체 보관 방법의 영향에 대한 고찰' 순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 경기도 임상병리사회

#### 경기도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참가

경기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유광철)는 10월 12일(토)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사회복지법인 한울장애인공동체(대표이사 안성준)에서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에 참가했다.



경기도회를 비롯한 7개 경기도의료기사단체 총연합회(경기도의기총)는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참가 회원들이 직접 수확한 농산품 구매를 통해 뇌병변장애인시설인 한울공동체를 후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임상병리사 이미지를 제고했다.

경기도의기총은 더운 날씨에도 농촌일손돕기 봉사료 고구마 수확뿐만 아니라, 선별 및 포장 작업을 도왔고 영농 폐기물 수거와 주변 환경정리 작업에도 힘을 보탰다.

7개 의료기사단체 중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인 경기도회 집행진은 한마음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뜻깊은 지역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이에 안성준 대표이사는 "오늘 농촌일손돕기 행사에 도움을 준 의료기사연합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유광철 회장은 "경기도회는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되어 기쁘고 보람된다"며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기도 임상병리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 충청남도 임상병리사회

#### 2024년 제2차 정기이사회 및 임원수련회 실시

충청남도 임상병리사회(회장 이상훈)가 9월 28일(토) 오후 4시 태안 천리포 수목원에서 2024년 제2차 정기이사회 및 임원수련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기이사회 및 임원수련회에는 이상훈 회장 외 16명이 참석했고, 이사회 안건으로는 '2024년 충청남도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환경정화활동'과 '충남도회 제2차 보수교육'이 다루졌다.



#### 2024년 충청남도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환경정화활동 참가

충청남도 임상병리사회 이상훈 회장 외 8명이 10월 13일(일) 천안 태조산 유랑천 일대에서 2024년 충청남도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환경정화활동에 참가했다. 충청남도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상훈 회장은 이번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충남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의 결속과 친목을 도모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2024년 추계학술대회 성공적 개최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학회장 소선거)는 10월 12일(토)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에서 위장관(GI tract)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446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제1연자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최병일 임상병리사는 non-neoplastic intestinal disease 중 inflammatory bowel disease(IBD)를 주제로 강의했다. IBD는 ulcerative colitis와 crohn's disease로 나뉘며, 두 질환은 유사해 보이지만 병리학적 양상에서 몇몇 차이를 보이는데, IBD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육안검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제2연자 강릉아산병원 강주원 임상병리사는 대장암 발생의 유전적인 변화와 유전적인 변화를 찾기 위한 검사방법으로 강의했다. 대장암의 발생 기전과 대장암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분자 병리검사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사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제3, 4연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김어진 교수로 상피종양의 이해와 하부 호흡기계(폐) 및 위장관계 상피종양의 조직학적 소견이라는 주제로 현미경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내용은 '상피종양의 이해' 부분에서 종양의 종류와 분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병리사가 주로 접하는 상피종양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목표로 체계적인 강의를 진행했고, '하부 호흡기계(폐) 및 위장관계

상피종양의 조직학적 소견' 부분에서는 하부 호흡기계(폐)의 중요 암종과 위장관계의 샘암종에 대하여 정상조직 및 암조직의 조직 슬라이드를 현미경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학습하도록 했다.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필수교육과 함께 전문임상병리사 무료 보수교육을 실시해 조직, 세포, 육안전문임상병리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는 서울아산병원 병리과 digital pathology 투어를 13시와 15시 각각 25명씩 교육하고, 검사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 회원들은 관심과 궁금증을 충족했다.

2025년도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학술대회는 서울아산병원에서 5월 24일 토요일에 추계학술대회와 조직전문임상병리사 보수교육, 임상병리학과 학생포럼을 동시에 실시하고, 10월 18일 토요일에 추계학술대회와 세포 및 육안전문임상병리사 보수교육을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2024년도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추계학술대회

2024년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제2차 보수교육 실시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위원장 신민식)는 10월 12일(토)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소강당에서 제2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보수교육에는 위원회 회원 72명이 참석했고, 보수교육 연재로는 △Her-2 저발현 유방암의 진단과 치료(이대서울병원 김정호) △유방 종양의 분류(춘천성심병원 한상학 교수) △입문자가 알아야 할 유방의 증식성 병변(중앙보훈병원 김준연)

△슬라이드 토의(평촌성심병원 박목련, 원자력의학원 신영순)와 같이 유방질환과 관련된 육안, 조직, 세포, 면역, 분자병리 등의 다양한 주제로 보수교육이 진행됐고 교육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또한, 이날 9월 7일(토)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자격시험에서 합격한 16명의 양성교육 2기 회원들에게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자격증 수여식을 통해 자격증을 수여했다.



Certificate Award Ceremony  
No. : SCT-343  
유나유(Yu Na-yu)  
서울유전병원  
No. : 80197

대한임상유전검사학회

제2차 NGS 교육 개최

대한임상유전검사학회(학회장 이건동)가 10월 12일(토)부터 13일(일)까지 이틀간 회원 20명을 대상으로 Thermo Fisher Scientific Korea(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코리아) 수서오피스에서 '2024년 제2차 NGS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2024년 유전검사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실시된 NGS 교육으로, NGS 검사의 이해, 실험과정 및 분석 과정뿐 아니라 sequencing 검사, Real time PCR 검사의 원리 및 trouble shooting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교육에 참가한 회원들은 "NGS 검사 및 Bioinformatics 교육 등을 통해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고 대한임상유전검사학회는 "앞으로도 기업체의 기술적인 경험과 현장 의료 및 진단 동향을 서로 공유하는 교육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진단의 최일선에 있는 임상병리사들이 NGS를 비롯한 분자진단검사의 분석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CASSETTE MATE



- COMPACT SIZE**  
콤팩트한 사이즈로 인해 공간 확보가 용이합니다.  
▶ 무게 : 12.5 Kg (hopper 500 g) ▶ 필요동력 : AC 85~264v / 5V, 50/60 Hz  
▶ 크기 : 190\*305\*330 mm (호퍼 포함 높이 460 mm)
- REDUCE OPERATIONAL COST**  
레이저 마킹 기술을 사용하여 별도의 유지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인쇄속도 : 1개 4.5초 (50개 기준 QR코드 포함 글자 15자 - 4분내외)  
▶ 최대 수량 : 50 cassette ▶ 레이저 파워 : 3 W
- EASY TO USE**  
작동법이 단순하여 누구나 쉽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 LOW WORK NOISE**  
소음 (<65dB)이 적어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주)현일랩메이트 HYUNIL  
전화 1577-6255 | 팩스 02-332-1974  
이메일 tax@hyunil-lab.com  
홈페이지 www.hyunil-lab.com



동의대학교 임상병리학 교수 연구진, 수면패치 개발... 환경에 교수를 만나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다. 수면은 일상에서 쌓인 피로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뿐만 아니라 신체 면역력 강화, 기억력 강화, 집중력 강화 등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이지만 많은 현대인들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최근 동의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교수 연구진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면을 위한 수면패치를 개발해 본 기사는 동의대학교 임상병리학과 환경에 교수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에 개발하신 수면패치의 개발 배경과 개발의 목적이 궁금합니다.

교수로서 오랫동안 알츠하이머 연구를 진행해온 결과, 전조현상으로 불면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치매와는 관계없이 전 세계 인구의 약 30% 이상이 불면증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해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멜라토닌이나 세로토닌 제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들은 오심, 구토 등의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성기능 장애로 인해 지속적인 복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를 통해 수면 패턴을 분석한 결과, 입면 시간이 단축되었고, 수면 중 깨어나는 횟수가 감소하며 깊은 수면시간이 연장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병리사 회원 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상병리사가 연구한 결과는 재현성이 좋다!' '임상병리사가 연구하여 만든 제품은 신뢰성이 높다!'

회원 여러분 저는 임상병리사가 사회적 기여에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성이 높은 결과 도출로 신뢰성이 보장된 근거기반 의료서비스의 핵심 전문 인력인 임상병리사는 연구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동의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교수이자 주식회사 너브바이오사이언스(Nerve BioScience Co., Ltd)의 대표인 환경에입니다.

따라서 복용 방법의 개선과 병원 방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천연물을 활용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한 자연수면패치(Jahyun Sleep patch)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수면패치에 적용된 천연물은 해죽순(Nypa fruticans Wurmb)입니다. 해죽순의 유효 성분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스트레스를 포함한 좌골 신경통 및 우울증 연구를 통해 효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특허와 국제전물학술지에 소개하였습니다.

2014년 네이처와 사이언스는 '실험재현성을 위하여 과학 저널들 뜻을 모으다(Journals unite for reproducibility)'라는 공동의 사설을 발표했고 2016년 네이처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70% 이상의 연구자가 다른 연구자의 실험을 재현하는 데 실패했고, 절반 이상이 자신의 실험을 재현하는 데 실패했다고 응답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연구재단을 포함한 여러 국책과제를 수행하며, 다수의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국내외 특허 및 기술이전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년 10월 중순에 한국연구재단 사업에 선정되어 실험실 창업에 하였습니다. 현재는 너브바이오사이언스는 동의대학교가 지주회사이며 부산특구 연구소기업으로 올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투자가 진행되어 시드머니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 열린 TechInnovation 2024에 참가하여 IPACE 회사와 MOU와 구매의향서(LOI)를 체결하는 쾌거를 얻어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수면장애가 있는 분들, 모유 수유 중인 분들, 단순한 해의 시차 적응이 필요한 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수험생, 갱년기 여성의 수면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자연수면패치를 개발하였습니다. 자연수면패치는 팔이나 목 부위에 간단히 부착할 수 있는 형태로, 병원 치료 및 약물의 부작용 없이 편안하게 사용하여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사의 인식제고가 많이 부족한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임상병리사가 연구한 결과는 재현성이 좋고 이 결과로 만들어진 제품은 신뢰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기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연구재단에서 우수 연구결과 제품으로 선정되어 와디즈 펀딩에 자연수면패치 제품이 11월 15일 14시 오픈 예정입니다. (https://www.wadiz.kr/web/wcomingsoon/nwd/319664)

생체신호 분석 결과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수면다원검사

많은 선배님, 후배님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2024년! 감상평 이벤트

## 여러분의 병리협보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병리협보가 정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의 감상평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4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 1) 접수기한 : 2024년 11월 30일(토) 23:59까지 전송
- 2) 접수방법 :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 (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 3)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상품을 받으실 주소

### [제501호 당첨자]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국회 좌담회 개최/송기선 학술부회장, IFBLS 이사당선 /부서별 자료 게시판 운영

#### 이윤경(정회원)/면허번호 : 11992

항상 병리 협보를 열심히 읽고있는 회원입니다. 요즘 협보를 보고 있노라면 예전 우리의 의견조차 관철 시킬 수 없었던 시절과 많은 비교가 됩니다. 협회장님 이하 병리사들이 병원, 학교, 관공서 등 곳곳에서 각자 열심히 활동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까지 우리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 저절로 어깨가 으쓱합니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제주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 도내 임상병리사 업무 소개/국회 토론회 개최

#### 이동혁(정회원)/면허번호 : 60496

간염유화검사와 난임연구원의 업무를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늘 익숙한 업무 영역이 아닌 새로운 업무에도 열심히 발판을 마련하시는 선생님들 멋지십니다. 협회에서 국회토론회 개최를 통해 업무영역의 확장과 방향성에 힘을 기울이는 모습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방문 현장검사(POCT)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통합지원법,임상병리사의 역할과 방향

#### 곽민정(정회원)/면허번호 : 21846

초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 관리 및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 및 질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돌봄이 필요할 때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진료에 임상병리사가 투입되어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는 방문 검사에 대한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통해 의료, 건강증진, 질병관리,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노인요양, 주거 등 지역 돌봄 패키지에서 각 분야 사업 중 기존사업의 재구성하고 신규사업으로 이어지는 돌봄서비스의 세밀한 요소들의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관계자 분들 노고에 감사합니다. 10월호 병리협보에 반가운 소식에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하루였습니다.

### FUND RAISING 협회 발전 기금 모금

존경하는 7만 8천 회원 여러분,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협회와 신축 협회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협회 발전 기금 모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회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048437-04-007038**  
(예금주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입금명 : 면허번호+성명, 기관일 경우는 기관명으로 기재



### 씨젠의료재단, 2024년 CQI 경진대회 개최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이사장 천종기)은 10월 16일 본원에서 2024년 CQI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지속적 품질관리) 경진대회를 가졌다.

CQI 경진대회는 검사 품질 향상 및 경영 효율성·고객 만족 증대를 위해 검사·행정·사업 등 전 부문을 대상으로 해마다 시행되는 재단의 품질관리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본원 및 부산경남·대구경북·광주호남·대전충청검사센터에서 총 20개 팀이 참가하였고, 지난 2월부터 9월까지의 업무개선 활동 평가와 CQI 위원 평가를 거쳐 8개 팀이 최종 경진대회에서 성과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CQI 경진대회에 대한 전사적인 관심과 함께 업무개선 활동의 중요성을 공유하고자, 최종 경진대회에 앞서 임직원 투표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한규섭 대표의료원장은 총평으로 "CQI 활동은 우리 재단의 혁신을 견인하는 매우 소중한 활동"이라며 "바쁜 와중에도 체계적인 사고를 통해 업무개선 사항을 검증하고, 꾸준한 품질관리 활동을 실천한 모든 팀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종기 이사장은 "약 1년간의 CQI 활동을 통해 우리 재단의 업무를 체계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CQI 참가자 분들께 감사함을 느낀다"며, "검사센터 운영의 성패는 결국 품질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임직원 모두가 품질관리에 안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TALK

앞으로 병리협보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송됩니다. 카카오톡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 Atellica IM Analyzer and ADVIA Centaur Immunoassay Systems

# Anti-Müllerian Hormone (AMH) Assay

siemens-healthineers.com/kr/laboratory-diagnostics



Anti-Müllerian Hormone(AMH) 항물러관 호르몬은 난포에서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혈청 내 AMH 수치는 난소 예비능 및 난소 기능을 판별할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혈청학적 검사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Siemens Healthineers의 AMH 검사 주요 특징

- **난소기능검사 종합 결과 제공:** 수검자의 나이와 AMH 수치를 바탕으로 연령대 통계 구간 및 AFC 동난포 개수 예측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빠른 처리:** 28분의 신속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 **광범위한 적용:** 가임력 평가, 난임 치료, 조기 폐경 및 PCOS 평가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sup>1, 2, 3</sup>
- **효율적 워크플로우:** Atellica Solution과 통합하여 검사실 자동화 및 처리량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Atellica® IM 및 ADVIA Centaur® 에서 검사 가능한 폭넓은 생식·내분비 검사 패널					
NEW AMH	Androstenedione	DHEA-S	FSH	hCG	LH
	Prolactin	Estradiol	Progesterone	SHBG	Testosterone

### Siemens Healthineers의 AMH 검사 성능

장비	검체	검체량	측정범위	측정 민감도	칼리브레이션 주기	장착 후 시간	검사
Atellica IM Analyzer	Serum and plasma	100 µL	0.030-24.0 ng/mL	LoB: 0.010 ng/mL LoD: 0.020 ng/mL LoQ: 0.030 ng/mL	Lot calibration: 52 days Pack calibration: 42 days	70 days	28 min
ADVIA Centaur XP / XPT systems					28 days		

#### References.

1. Huang J, et al. Anti-Müllerian hormone for the prediction of ovarian response in progestin-primed ovarian stimulation protocol for IVF. Front Endocrinol. 2019;10:325.
2. Josso N, Rey R, Picard JY. Testicular anti-Müllerian hormone: clinical applications in DSD. Semin Reprod Med. 2012;30(5):364-373.
3. Rey RA, Grinspon RP, Gottlieb S, et al. Male hypogonadism: an extended classification based on a developmental, endocrine physiology-based approach. Andrology. 2013 Jan;1(1):3-16.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재)씨젠의료재단은 국내 최고 수준의 검사 역량을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3년 7월 해외 의료 진출을 위한 오픈헬스케어(주)(Open Healthcare, Inc.)를 설립했습니다. 카자흐스탄 · 미국 · 베트남 등에서 검사센터와 클리닉 및 검진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질병검사 및 치료를 제공하는 글로벌 헬스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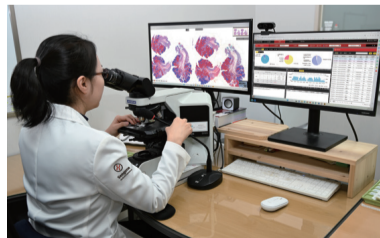
## (재)씨젠의료재단은 품질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검사실 자동화(TLA) 시스템 운영



국내 최대 분자진단 검사 역량 보유



인공지능(AI) 등 최첨기술 도입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서비스 제공